

남녀청소년의 자존감, 친구애착,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우 성 범 김 성 연 임 승 우 백 인 규 남 덕 현 양 은 주[†]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존감, 친구애착, 비행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그 초기치와 변화율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잠재 성장모형을 검증하였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자기강화이론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존감과 비행의 관계만을 확인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비행의 관계에서 친구애착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각 변수의 변화양상을 알아보았다. 한국청소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 3449명의 자료를 1개년부터 5개년 까지 분석하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자의 자존감, 친구애착, 비행의 변화모형을 추정 결과, 자존감과 친구애착은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선형변화모형이 지지되었으나 비행은 선형변화모형이 지지되지 않아 시간적 흐름과 변화양상이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과 친구애착의 변화모형에 대해 성별간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존감의 초기치, 친구애착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한 성별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변인들의 추정된 변화모형을 종합하여 다변량 잠재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자기강화이론모형을 검증하여 청소년의 자존감이 비행과 친구애착을 통해 강화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강화이론 모형의 성별간 다집단분석을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른 연구모형의 경로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자기강화이론, 잠재성장모형, 청소년 비행, 자존감, 친구애착

[†] 교신저자: 양은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E-mail: yange@korea.ac.kr

청소년 비행은 개인의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현상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은 1997년 정점을 찍고 해마다 줄어들어 안정화하는 경향이나, 이러한 추세는 청소년 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대한 연구(이경상, 이순래, 박철현, 2007)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은 일회성 비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비행은 초기 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비행 행동, 즉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경험, 성관계 경험 등의 행동으로 시작되나, 점차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같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중비행 행동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청소년 비행 혹은 범죄는 점점 더 심각해 경찰청(2011)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 가운데 강력범죄의 비율이 40%에 이르며, 재범률 또한 35%를 넘었으며 점차 흉포화, 집단화 및 저연령화되는 경향이 있다(신혜섭, 2005). 청소년 비행은 개인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낮은 자기통제력(민수홍, 2006; 이성식, 2007; 조주연, 김신영, 2010; Pratt & Cullen, 2000)과 낮은 자존감(김은경, 유가호, 2002; 심희옥, 1998; 이은주, 2000; Kaplan, 1980)등과 같은 개인 변인을 원인으로 보는 연구들과 가정, 학교 생활, 친구 관계등과 같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연구들

(노성호, 2006; 이성식, 1999; Loeber & LeBlanc, 1990; Sampson & Laub, 1993)이 있었다. Gottfredson와 Hirschi(1990)가 주장한 일반이론에서는 낮은 자기 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어렸을 때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인해 청소년 비행이 일어나고, 성인의 중범죄까지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 이론은 비행 및 범죄연구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으나,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 친구나 가정, 학교와 같이 성장과정에서의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특히 친구와의 관계 변인을 가장 강조하였다(노성호, 2006; 오미경, 1997; 이성식, 1999; Simons, Johnson, Conger & Elder, 1998)

이 중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기 인식의 결과로 보는 연구들은 청소년 비행연구 초창기부터 이루어졌다. Kaplan(1978)의 자기강화 이론은 청소년 비행을 자존감과 관련지어 설명한 주목받는 이론 중 하나이다. 본래 이 이론은 어느 특정한 유형의 비행을 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보다는 다양한 비행을 일으키는 공통적인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Kaplan, 1975a). 비행을 설명하기 위한 Kaplan의 이론은 모든 개인은 긍정적인 자기 태도를 극대화 하고, 부정적인 자기태도를 최소화 하려 하는 기본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적응하고 그 집단의 규범에 부응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 그러나 주류의 준거집단에서 적절히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은 부정적인 자기태도를 갖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진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점차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기준을 따를 동기를

않게 된다. 위협받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부정적인 자기태도를 낮추기 위해 소속집단의 규범을 위배하는 행동, 즉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비행행동이 효과적으로 자기존중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한다. 비행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안정감과 소속감을 얻고,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며 쉽게 비행행동에 개입한다. 기존의 준거집단의 부모나 교사 대신 비행또래집단의 친구들이 그들에게 중요한 타자가 되어, 그들과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의 정당성을 얻고 지지를 받게 된다. Kaplan은 비행행동이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전통적인 준거 집단에서 얻지 못한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받기 위한 방어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리하자면, 자기강화 이론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낮은 자존감으로 보고, 비행행동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비행이 낮은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략이라는 자기강화 이론을 지지하는 다양한 경험적 증거들이 있다. Rosenberg, Schooler, Schoenbach(1989)은 1886명의 청소년 패널을 활용하여 분석을 한 결과, 낮은 자존감이 비행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비행 행동을 통해 자존감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Mason(2001)의 연구 역시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이 비행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비행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자존감이 낮은 경우, 비행 및 다양한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김은경, 유가효, 2002; 심희옥, 1998; 오영경, 이형실, 2010; 이은주, 2000). 흥미로운 것은 자존감이 낮을수록 비행이 증가하지만, 비

행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낮은 자존감을 보고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홍정순, 2010). 홍정순(2010)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비행청소년들이 비행행동에 가담하는 것이 낮았던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기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낮은 자존감이 필연적으로 비행을 야기하지는 않으며, 또한 비행행동 자체가 청소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Jang & Thornberry, 1998). 실제로, 자존감이 청소년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자존감이 낮은 경우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증가하지만, 그것이 비행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조아미, 2008)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비행은 사회적 낙인을 야기하기 때문에, 비행의 결과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 역시 존재한다. 3,449명의 청소년 패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경비행 행동은 낙인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자존감의 감소가 나타나며 이것이 다시 중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2006). 김희화와 김경연(2000) 역시 청소년들이 비행 이후 나타나는 중요한 타인의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정적 자아상을 확립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비행행동과 자존감의 관계에 대해 불일치하는 선행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것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 인과관계가 아닌 역동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호역동적인 변화 양상의 기제에 대한 이해 없이 두 요인들의 관계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행과 자존감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낮

은 자존감이 비행에 촉발하지만, 오히려 비행이 자존감을 향상시키게 되는 과정에는 비행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친구와의 애착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Kaplan의 자기강화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비행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삼고 이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존감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경험적 연구들 역시 친구와의 애착이 비행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많은 국내외 연구들이 비행친구와의 교류 및 비행친구의 수가 비행행동과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희화, 2001; 노성호, 2006; 오미경, 1997; 유혜경, 1987; 이성식, 1999; 전쌍식, 1999; Chapple, 2005; Matsueda & Anderson, 1988; Paternoster & Brame, 1997; Simons, Johnson, Conger, & Elder, 1998). 특히 다른 요인들과 비교할 때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비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Simons et al., 1998). 국내에서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청소년비행 관련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도 비행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변인은 비행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진혜민, 배성우, 2012). 한편, 친구와의 관계는 청소년 자존감 발달의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다. 상호적으로 친밀하다고 느끼는 친구가 적어도 한명 이상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Bishop & Inderbitzen, 1995), 종단적 연구에서도 친구관계에서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2). 요약하면, 친구와의 관계는 비행 뿐 아니라 자존감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자기강화 이론에서 주장하듯이, 비행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이는 비행행동에 수반되는 친구

들과의 친밀감과 애착경험이 작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비행과 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를 매개하는 친구와의 애착 경험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비행과 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또 다른 요인은 성차로, 성별에 따라 비행행동이 가지는 기능이 다를 수 있다. 비행과 관련된 성차 연구는 대부분 비행행동 자체에 대한 성차에 대한 것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비행행동을 보인다고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심희옥, 1997; 이명우, 1997; 김희화, 김경연, 2000). Kaplan(1975b)은 비행행동이 가지는 가치에 있어서도 성차가 있으며, 비행행동으로 인한 자존감의 향상 효과는 여자 비행청소년들보다 남자 비행청소년들이 더 크게 경험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비행청소년 중 남자청소년의 자존감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유성경, 2002)는 이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행의 기능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하는 것은 비행에 수반되는 낙인에 대한 성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남자청소년의 비행은 더 허용적으로 인식되고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서는 더 심한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정익중, 2005). 이수진(2006)의 연구에서도 비행의 수준이 심각해질수록 남학생에게는 가시적 통제인 직접 통제요인이 작용하는 반면, 여학생에게는 타자에 의한 수치심에 의한 통제인 낙인통제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남자청소년들에게는 비행이 자존감을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여자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기능이 사회적 낙인에 의해 상쇄되어 제한 될 수 있다. 또한 비행과 비행친구와의 교류간 상관 역시 여자청소년들보다

남자청소년들에게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박현선, 이상균, 2008) 역시 비행, 친구애착, 자존감으로 연결되는 모형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이전의 많은 연구들이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낮은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비행을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으나(김은경, 유가효, 2002; 심희옥, 1998; 이은주, 2000; Kaplan, 1980; Mason, 2001; Rosenberg et al., 1989), 비행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지, 또한 이 과정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존감에 대한 비행의 기능적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들 관계를 친구와의 애착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친구와의 애착은 비행 및 자존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요인으로, 비행과 자존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행과 자존감 관계에 대한 모형에 친구와의 애착을 매개요인으로 포함시켜 확장함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비행행동 자체인지 혹은 비행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친구와의 친밀감인지를 구분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간과했던 성별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규범의 성차는 여자청소년들의 비행행동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낙인을 부여하므로 여자청소년들의 비행이 자기존중감 향상에 가지는 기능적 가치는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기존 비행과 자존감에 대한 관계 모형을 확장하여, 이들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친구 애착을 상정하고 이들의 변화 양상을 종단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사

용하였다. 자기강화 이론은 비행을 통한 자존감의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모형으로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에 기초한 변화 수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잠재성장 모형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반복측정된 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다룬 구조방정식모형으로서 각 요인의 초기치와 변화량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초기치와 변화량을 잠재변수로 추정한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하면 변화에서 개인차와 유의미한 정도, 개인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한 변수에서 다른 변수로의 변화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Duncan, 1999).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비행, 친구애착, 자존감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아울러 비행의 변화가 친구애착 및 자존감의 변화에 예측하는 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상정된 비행-친구애착-자존감의 모형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자존감 향상기제로서의 비행행동의 가치가 남녀간에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KYPS (Korea Youth Panel Survey)의 중2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중2패널은 2003년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식(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에 의해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1년동안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한 자료로서 현

재 총 6개년도의 측정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시기까지인 고3(2007년) 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참가자는 총 3,449명이며 그중 남자는 1725명(50.0%), 여자는 1724명(50.0%)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비행

KYPS 설문지중 비행과 관련된 문항 14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지난 1년 동안 본인의 담배피우기, 술마시기, 무단결석, 가출경험, 성관계경험, 폭행, 패싸움, 물건 뺏기, 물건 훔치기, 원조교제,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협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 따돌림,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묻는 질문으로 경험 유무로 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연도 별로 각각 .70, .72, .66, .63, .60로 나타났다.

자존감 척도

KYPS 설문지중 자존감에 해당하는 6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은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후반부의 3문항은 역채점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연도 별로 각각 .73, .74, .75, .75, .76으로 나타났다.

친구애착 척도

KYPS 설문지중 친구애착과 관련된 문항 4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연도 별로 각각 .76, .83, .83, .82, .82 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모형의 분석은 우선 각 변인을 설명할 수 있는 변화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각각의 변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분석하였다. 각 변인의 변화모형을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변인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다변량 잠재 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으로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분석된 잠재성장모형이 성차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우선 각 변인별로 추정된 일변량잠재성장모형에 대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별 변화모형의 성차를 확인하였다. 그 후 변인들을 종합하여 관계를 설정한 다변량 잠재 성장모형에 대해서도 성차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성장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χ^2 대신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χ^2 검증의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해서 모형이 너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와 χ^2 값이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 중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는데, 이 지수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TLI와 CFI의 경우 .95 이상일 때, RMSEA의 경우는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다집단분석을 통한 모형의 비교를 위해서는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비교는 내재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재된 모형, 즉 한 모형이 다른 모형에 포함된 경우 두 모형의 χ^2 차이가 χ^2 의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χ^2 검증을 할 수 있다. 다집단 분석에서의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은 내재된 모형이므로 두 모형의 자유도의 차이에서 χ^2 값이 유의미한지 검증하는 χ^2 검증이 가능하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본 연구에는 결측치가 있으므로 AMOS에서 제공하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를 이용하였다(Arbuckle, 1996).

결 과

상관분석

잠재성장모형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각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각 시점별로 대부분의 자존감과 친구애착간의 정적상관($.03 < r < .17$)이 나타났다. 자존감과 비행간은 대체적

으로 부적 상관($-.04 < r < -.17$)의 양상을 보였다. 또한 친구애착과 비행은 대체적으로 정적상관($.04 < r < .06$)을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존감, 친구애착, 비행의 개별 변화모형 검증

청소년의 비행과 자존감, 친구애착간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각 변인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확인하였다. 무 변화모형이나 선형변화모형은 측정시점이 세시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 네 시점 이상일 경우 고차함수모형까지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측정시점이 5시점이므로 3차함수모형까지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차함수 모형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결과의 해석이 어렵고, 이론적 기반을 찾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별 모형을 선형변화모형까지 추정하였다.

각 요인의 변화모형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자존감의 경우에는 무변화모형($\chi^2 = 604.91$, $df=13$, $TLI=.811$, $CFI=.836$, $RMSEA=.115$)은 좋지 않은 적합도로 나타났으나, 선형변화모형($\chi^2 = 77.731$, $df=10$, $TLI=.972$, $CFI=.981$, $RMSEA=.044$)에서는 좋은 적합도가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친구애착의 경우에도 무변화모형($\chi^2 = 419.967$, $df=13$, $TLI=.813$, $CFI=.838$, $RMSEA=.095$)은 좋지 않은 적합도를 보였으나, 선형변화모형($\chi^2 = 85.778$, $df=10$, $TLI=.955$, $CFI=.970$, $RMSEA=.047$)에서는 좋은 적

합도를 보였다. 즉 자존감과 친구애착 모두 시간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하는 선형변화모형으로 일변량잠재성장모형이 채택되었고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미하였기 때문에

자존감과 친구애착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비행은 무변화모형($\chi^2 = 8199.236$, $df=13$, $TLI = -1.092$, $CFI = .000$, $RMSEA = .427$)과 선형변화모

표 1. 측정변수들의 상관 및 기술통계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자존감1	1											
2. 자존감2	.43**	1										
3. 자존감3	.39**	.43**	1									
4. 자존감4	.34**	.38**	.49**	1								
5. 자존감5	.34**	.38**	.42**	.48**	1							
6. 친구애착1	.05**	.04*	.03*	.06**	.08**	1						
7. 친구애착2	.06**	.11**	.09**	.10**	.10**	.39**	1					
8. 친구애착3	.05**	.07**	.09**	.08**	.10**	.31**	.35**	1				
9. 친구애착4	.02	.04**	.04*	.12**	.11**	.28**	.32**	.40**	1			
10. 친구애착5	.05**	.06**	.08**	.10**	.17**	.27**	.31**	.34**	.40**	1		
11. 비행1	-.17**	-.10**	-.07**	-.01	-.07**	.07**	.02	.04*	.05**	.02	1	
12. 비행5	-.08**	-.06**	-.02	-.04*	-.07**	.06**	.04**	.05**	.06**	.03*	.30**	1
M	18.97	19.60	19.91	20.02	20.53	16.22	16.65	16.97	16.92	17.08	15.14	14.91
SD	3.74	3.77	3.63	3.67	3.69	2.62	2.68	2.52	2.51	2.49	1.68	1.15

* $p < .05$, ** $p < .01$

표 2. 각 변인별 모형 분석결과

		χ^2	df	TLI	CFI	RMSEA	초기치		변화율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자존감	무변화모형	604.91	13	.811	.836	.115	19.803***	5.624***		
	선형변화모형	77.731	10	.972	.981	.044	19.091***	6.376***	.355***	.274***
친구애착	무변화모형	419.967	13	.813	.838	.095	16.763***	2.240***		
	선형변화모형	85.778	10	.955	.970	.047	16.351***	2.884***	.198***	.134***
비행	무변화모형	8199.236	13	-1.092	.000	.427	14.635***	.692***		
	선형변화모형	7432.375	10	-1.466	.000	.464	13.839***	.829***	.260***	.035***

*** $p < .001$

형($\chi^2 = 7432.375$, $df=10$, $TLI=-1.466$, $CFI=.000$, $RMSEA = .464$)이 모두 적합하지 않게 나타나 이후의 분석모형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거나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하지도 않는 시간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치와 변화량을 추정할 수 있는 변화모형이 아니라 1년도와 5년도의 비행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연구모형에 사용하였다.

시간에 따른 자존감의 변화에서 성별 간 차이검정

자존감의 선형변화모형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자존감의 초기치와 기울기는 표 3에, 다집단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잠재성장모형의 집단간의 비교를 위해서 형

태동일성,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의 순서로 검증을 실시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자존감의 선형 변화모형에서 성별간에 아무것도 제약하지 않은 기저모형(형태동일성)과 자존감의 초기치가 성별간에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자존감의 기울기가 성별간에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을 비교하여 모형간의 χ^2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존감의 초기치에서 기저모형과 성별간에 자존감의 초기치가 동일하다고 제약한 모형간의 유의미한 차이($\Delta\chi^2 = 12.414$, $p < .001$)를 보여 성별간에 자존감의 초기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자존감의 초기치($M=19.29$)가 여학생의 자존감의 초기치($M=18.89$)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존감의 변화율에서

표 3. 성별간 자존감의 초기치와 변화량

	남			여		
	M	SD	t	M	SD	t
자존감 초기치	19.29	.08	243.94***	18.89	.08	229.24***
자존감 변화율	.32	.03	12.70***	.39	.03	15.59***

*** $p < .001$

표 4. 성별에 따른 자존감의 선형변화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 결과

Model	χ^2	df	NFI	TLI	CFI	RMSEA	모형비교	
							Δdf	$\Delta\chi^2$
형태동일성: 기저모형	100.082	20	.973	.967	.978	.034		
절편요인의 평균 동일성: 자존감 초기치	112.497	21	.969	.964	.975	.036	1	12.414***
기울기요인의 평균 동일성: 자존감 변화율	103.344	21	.972	.968	.977	.034	1	3.262

는 성별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에 따른 친구애착의 변화에서 성별 간 차이검정

친구애착의 선형변화 잠재성장모형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친구애착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표 5에, 다집단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 친구애착의 초기치에서 기저모형과 성별간에 자존감의 초기치($\Delta\chi^2 = 74.771, p < .001$)와 친구애착의 변화율($\Delta\chi^2 = 7.191, p < .01$)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친구애착의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성별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양상을 알아보면 친구애

착의 초기치는 남학생($M=16.03$)보다 여학생($M=16.68$)이 더 높게 나타나 초기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친구애착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구애착의 기울기는 남학생($M=.23$)이 여학생($M=.16$)보다 높게 나타나 남학생의 친구애착이 여학생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행, 친구애착, 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

각 변인별 분석모형 검증을 통해 얻어진 각 변수의 변화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치의 비행이 친구애착을 통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비행의 자아강화이론을 그림1과 같이 설정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표 5. 성별간 친구애착의 초기치와 변화량

	남			여		
	M	SD	t	M	SD	t
친구애착 초기치	16.03	.06	273.116***	16.68	.05	313.076***
친구애착 변화율	.23	.02	12.396***	.16	.02	9.418***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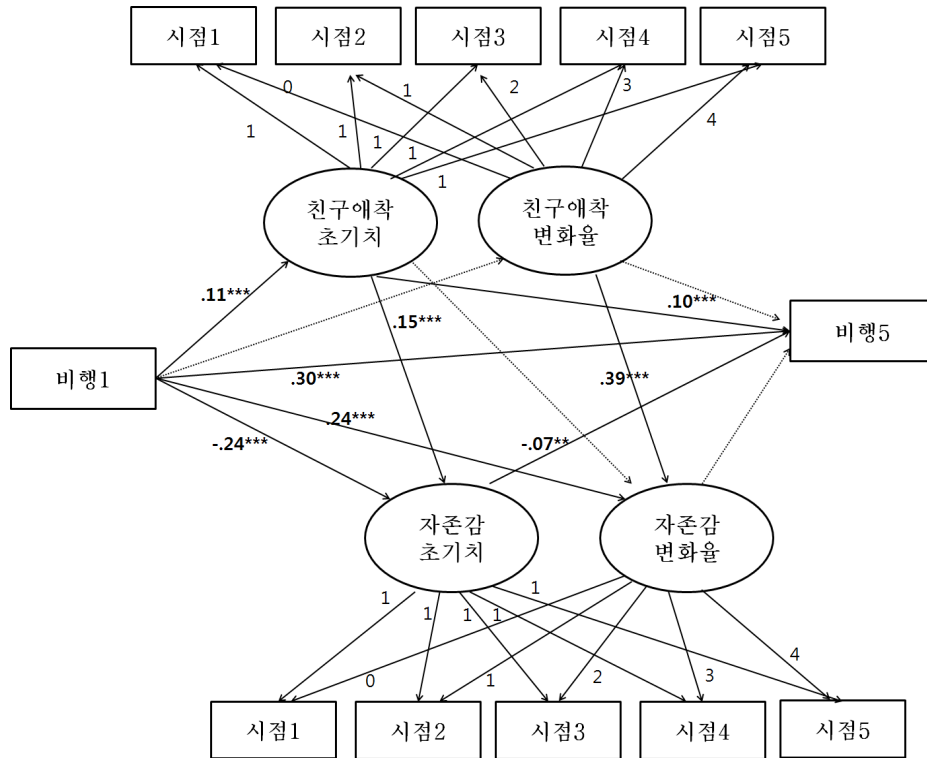
표 6. 성별에 따른 친구애착의 선형변화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 결과

Model	χ^2	df	NFI	TLI	CFI	RMSEA	모형비교	
							Δdf	$\Delta\chi^2$
형태동일성: 기저모형	100.082	20	.973	.967	.978	.034		
절편요인의 평균 동일성: 자존감 초기치	174.853	21	.929	.910	.937	.046	1	74.771***
기울기요인의 평균 동일성: 자존감 변화율	116.033	21	.956	.945	.964	.036	1	7.191**

*** $p < .001$

표 7. 다변량 잠재 성장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308.175	55	.947	.962	.037(.033-.04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자기강화이론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잠재성장모형 검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표 7과 같이 $\chi^2 = 308.175$, $df = 55$, $TLI = .947$, $CFI = .962$, $RMSEA = .037$ 로 모두 좋은 적합도를 보여 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들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경로들을 살펴보면 1년도의 비행이 친구애착의 초기치($\beta = 11$, $p < .001$)와 자존감의 초기치($\beta = -24$, $p < .001$), 자존감의 변

화율($\beta = 24$, $p < .001$)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즉 1년도의 비행이 높을수록 친구애착의 초기치와 자존감의 변화율도 높은 반면 자존감의 초기치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구애착과 자존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구애착의 초기치가 자존감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beta = 15$, $p < .001$)이 정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친구애착의 변화율이 자존감의 변화율에

표 8.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β	B	$S.E.$	t
비행1	→	친구애착 초기치	.11	.10	.02	4.22***
비행1	→	친구애착 변화율	-.11	-.01	.01	-1.88
비행1	→	자존감 초기치	-.24	-.36	.03	-1.64***
비행1	→	자존감 변화율	.24	.08	.01	5.78***
비행1	→	비행5	.30	.21	.02	12.44***
친구애착 초기치	→	자존감 초기치	.15	.26	.05	5.28***
친구애착 초기치	→	자존감 변화율	.07	.03	.02	1.47
친구애착 변화율	→	자존감 변화율	.39	.95	.27	3.52***
친구애착 초기치	→	비행5	.10	.08	.02	3.79***
친구애착 변화율	→	비행5	-.01	-.03	.37	-.07
자존감 변화율	→	비행5	-.06	-.13	.11	-1.22
자존감 초기치	→	비행5	-.07	-.03	.01	-3.23**

** $p < .01$, *** $p < .001$

표 9. 남녀 집단별 경로계수

			남				여			
			β	B	$S.E.$	t	β	B	$S.E.$	t
비행1	→	친구애착_초기치	.12	.12	.04	3.29***	.09	.07	.03	2.44*
비행1	→	친구애착_변화율	-.07	-.01	.01	-.78	-.13	-.02	.01	-1.75
비행1	→	자존감_초기치	-.23	-.34	.05	-6.91***	-.25	-.38	.05	-8.02***
비행1	→	자존감_변화율	.23	.07	.02	3.85***	.24	.07	.02	4.29***
비행1	→	비행5	.21	.18	.03	5.78***	.41	.22	.02	12.24***
친구애착_초기치	→	자존감_초기치	.12	.19	.07	2.93**	.21	.42	.08	5.53***
친구애착_초기치	→	자존감_변화율	.10	.03	.03	1.37	.02	.01	.03	.30
친구애착_변화율	→	자존감_변화율	.38	.93	.43	2.15*	.41	.97	.32	3.06**
자존감_변화율	→	비행5	.06	.16	.21	.74	-.20	-.33	.12	-2.90**
자존감_초기치	→	비행5	-.07	-.04	.02	-1.91	-.13	-.05	.01	-4.00***
친구애착_초기치	→	비행5	.19	.17	.03	5.13***	.06	.04	.03	1.56
친구애착_변화율	→	비행5	-.11	-.66	.73	-.91	.07	.29	.36	.81

* $p < .05$, ** $p < .01$, *** $p < .001$

미치는 영향($\beta=39, p<.001$)도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초기에 친구애착이 높은 학생이 자존감이 높으며, 친구애착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자존감도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5년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아보면 1년도의 비행($\beta=30, p<.001$)과 친구애착의 초기치($\beta=10, p<.001$)가 정적인 영향을, 자존감의 초기치($\beta=-.07, p<.01$)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에 비행이 높고 친구애착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학생이 5년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비행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행, 친구애착, 자존감의 관계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성별간 차이검정

자아강화모형에 대한 다변량 잠재 성장모형

에서 나타난 경로계수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 집단간 등가제약을 설정하였다. 집단간 등가제약은 일련의 경로계수들에 대해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과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을 비교하여 각 경로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다(Byrne, 2001).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검증 결과 모형 기각되어 연구모형의 경로에서 성별간의 집단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떤 경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경로계수를 동일화 제약을 가해 기저모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친구애착의 초기치가 자존감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과 자존감의 변화율이 5년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친구애착의 초기치가 5년도의 비행에 미

표 10. 성별에 따른 다변량 잠재 성장모형의 다집단분석 결과

	χ^2	df	TLI	CFI	RMSEA	모형비교	
						Δdf	$\Delta \chi^2$
기저모형	387.714	110	.942	.959	.027		
모든 경로에 동일화 제약	429.158	123	.943	.955	.027	13	41.444**
비행1 → 친구애착 초기치	388.725	111	.942	.959	.027	1	1.011
비행1 → 친구애착 변화율	387.974	111	.943	.959	.027	1	.26
비행1 → 자존감 초기치	387.923	111	.943	.959	.027	1	.208
비행1 → 자존감 변화율	387.715	111	.943	.959	.027	1	.001
친구애착 초기치 → 자존감 초기치	392.854	111	.942	.958	.027	1	5.14*
친구애착 초기치 → 자존감 변화율	388.258	111	.943	.959	.027	1	.544
친구애착 변화율 → 자존감 변화율	387.722	111	.943	.959	.027	1	.008
자존감 변화율 → 비행5	392.986	111	.942	.958	.027	1	5.272*
자존감 초기치 → 비행5	387.862	111	.943	.959	.027	1	.148
친구애착 초기치 → 비행5	397.885	111	.941	.958	.027	1	10.171**
친구애착 변화율 → 비행5	389.508	111	.942	.959	.027	1	1.793

* $p < .05$, ** $p < .01$

치는 영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친구애착의 초기치가 자존감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beta=.12, p<.01$)보다 여학생($\beta=.21, p<.001$)이 더 크게 나타났다. 자존감의 변화율이 5년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beta=.06, p>.05$)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여학생($\beta=-.20, p<.01$)의 경우에는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자존감의 변화율이 5년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남학생은 관련이 없었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존감이 빠르게 증가할 때 5년도의 비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친구애착의 초기치가 5년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beta=.19, p<.001$)의 경우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여학생($\beta=.06, p>.05$)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친구애착의 초기치와 5년도의 비행이 여학생은 관련성이 없었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친구애착의 초기치가 높은 경우 여전히 5년도의 비행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경로에서도 남녀간의 계수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남녀 청소년의 비행과 자존감, 친구애착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아강화이론에 근거하여 변인들에 대한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다변량 잠재 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비행과 관련된 성차 연구를 고려하여 비행, 자존감, 친구애착의 변화관계 모형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도 함께 검증하였다.

변인들의 변화 관계 모형 검증에 앞서, 각 변인별로 일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개별 변화모형을 추정한 결과에서 자존감과 친구애착은 중2년도부터 고3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선형변화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 발달이 고학년과 사춘기 동안 활발하게 나타난다는 O' Malley와 Bachman(198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 친구애착이 중2부터 고3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역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Allen과 Land(1999)는 청소년기에 친구애착이 증가하는 것은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애착을 재평가하고, 그러한 애착 욕구가 부모 애착으로부터 친구애착으로 점차 옮겨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자존감과 친구애착 각 변인의 선형모형을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자존감의 중학교 2학년 시기 초기치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Schunk과 Lilly(1984)의 연구와 일치한다. 반면 친구애착의 초기치는 여자청소년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증가량은 반대로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초기시기에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친구와의 애착을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것은 여자청소년들이 친구들로부터 더 많이 지지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조아미, 방희정, 2003). 한편 친구애착의 변화량은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 남자청소년들의 친구애착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기 때문에 추후 더 큰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친구애착의 초기치와 변화량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45(p<.001)$ 로 나타나, 이러

한 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행의 경우 무변화모형이나 선형변화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고 시간과 독립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ason(200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연구에 포함된 다른 변인들과 달리 청소년의 비행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친구애착이나 자존감의 경우 심리적 변인으로 안정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는데 비해, 비행은 행동적인 변인으로 측정시점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비행, 친구애착, 자존감 변화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비행이 낮은 자존감 및 높은 수준의 친구애착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이 추후 자존감의 향상으로 연결되나, 친구애착의 증가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자기강화 이론에서 비행이 자존감 향상을 위한 기제라고 주장한 것은 지지하는 것이나, 그 과정에 친구애착이 관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 비행이 같은 시기의 낮은 자존감과 상관이 있으며, 이후의 자존감 향상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Mason, 2001). 본 연구결과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비행과 자존감 변화의 관계가 친구애착이 관련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차년도 비행, 자존감, 친구애착을 살펴보면, 비행은 낮은 자존감과 관련되지만, 반대로 친구애착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친구애착과 자존감 역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자기강화 이론에서 제시하듯, 비행이 낮은 자존감으로 유발될 수 있으나, 동시에 친구와의 애착경험은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존감이 향상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행은 자존감 향상을 예측하였으나, 친구애착의 강화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의 향상이 비행으로 인한 친구와의 애착경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비행행동 자체로 인한 것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자기강화 이론의 비행과 자존감의 관계는 지지하나, 그 매개변인으로서의 친구애착의 효과는 지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초기 비행이 추후 친구애착의 강화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친구애착의 측정이 자기강화 이론에서 제시한 친구애착의 개념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기강화 이론에 의하면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은 다른 비행청소년들을 자신의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이들과 친밀감과 소속감을 발달시켜 나감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친구애착을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 준거집단이 다른 비행 청소년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이 친구애착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친구애착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비행의 자기강화 이론 모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에 있어서 비행이 낮은 자존감과 관련되며, 비행이 추후 자존감의 향상을 예측한다는 모형이 지지되었다. 반면 자기강화 이론에 근거한 비행, 자존감, 친구애착의 변화 모형에 있어서,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나타났다. 가장 흥미로운 차이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자존감의 변화가 5년도의 비행 감소를 예측하는 반면, 남자청소년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여자청소년의 경

우 자존감이 향상될수록 비행이 감소한 반면, 남자청소년은 자존감 향상이 추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비행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비난의 남녀 차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수형(2007)에 따르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과 달리 비행 후 비공식적 낙인이 증가하고 비행 후 가족간의 유대가 약해지거나 부모에게서 욕설이나 폭력적 경험을 하는 등의 부정적 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여자청소년에게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존감이 회복되면 여자청소년은 비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으나, 남자청소년의 경우 자존감 변화와 관계없이 비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남자청소년들의 추후 비행을 예측하는 요인은 초기 친구애착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비행친구가 위험요인인데 비해 여자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Mears, Ploeger & Warr, 1988). 다만 친구애착 변화량과 5년도 비행의 경우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설명이 제한적인 의미만을 가질 수 있으며 추후 구인 측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남자청소년의 비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자존감 및 친구애착 이외의 다른 요인을 고려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 성차가 나타난 부분을 살펴보면, 1년도의 애착과 자존감의 관계는 여자청소년에게서 더 강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내용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친구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지각할 뿐 아니라(조아미, 방희정, 2003), 자존감 형성에 있어서 친구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지각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 결과는 낮은 자존감이 비행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하나(Mason, 1989, 2001), 비행이 자존감을 높이는 경로를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가 매개할 것이라는 Kaplan의 주장은 지지하지 않았다. 친구와의 애착 관계는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나, 비행이 친구와의 애착을 촉진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비행 행동 자체가 자존감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자존감 향상이 추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결과이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비행으로 인한 자존감 향상이 추후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존감 향상으로 인해 비행이 감소했으며, 이는 자기강화 이론의 작동과정에서 성차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패널자료를 연구데이터로 사용했기 때문에, 연구에 포함된 척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비행의 개념은 경비행, 중비행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비행행동을 모두 합산한 결과를 사용하고 있어 더 타당성이 있으며 세부적인 비행척도를 포함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 설계의 특성상 비행, 친구애착, 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이들 요인들의 변화양상과 그 관계들을 검증하여 횡단자료에 근거한 모형 검증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포

합된 요인들의 조작이나, 다른 제3의 변인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인과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넷째, 비행이 심각한 청소년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을 중단할 확률이 높고 그 경우 패널데이터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의 적응수준을 유지하는 학생만 표본에 남게 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학교를 벗어난 학생을 포함하여 청소년 비행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보인다. 횡단적인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시간에 따라 반복측정한 종단데이터를 사용한 종단연구로서 각 변인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각 변인들의 상호적인 관계양상을 시간적 변화에 따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를 보이며 또한 자아강화이론에서 주장된 비행과 자존감과의 관계에서 친구애착의 역할과 상호적인 관계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자아강화이론의 발달적 인과성을 더 명료화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연구가 성차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이론적 모형에서 명확히 보여주지 못한 선행연구과 달리 각 변인들에 대한 일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연구모형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해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을 실시해 변화패턴과 모형에서 성별에 차이를 검증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 비행의 발생과 시간적 변화양상을 이해하고 그 개입방법에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비행과 자존감 및 친구애착의 관계, 특히 자존감 향상이라는 기능적 가치를 가지

는 행동으로서의 비행을 시사하는 본 연구결과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적 개입방법의 개발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행 청소년 상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비행을 자기조절기술의 결핍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기술을 향상시키는 훈련이 중심을 이뤄왔다. 구체적으로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개입을 살펴보면, 분노조절 기술(임소영, 2000),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김옥란, 2011; 이미정, 2006), 충동성 조절 능력(여미정, 2011), 공감능력(여미정, 2011; 한명수, 2000)등의 향상을 초점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비행이 자기조절능력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반면 본 연구결과는 비행이 친구와의 애착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는 기능적 가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를 개선하고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들 역시 비행의 문제를 다루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로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친구관계 및 자존감 개선을 간접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일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김숙희(2011)의 계슈탈트식 접근에 기반한 비행청소년 개입 프로그램의 경우 비행친구와 함께 문제점을 탐색하고 같이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친구관계를 향상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적 개입 프로그램에 있어서 자기조절능력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비행이 가지는 기능적 의미를 간과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친구관계에서의 친밀감과 자존감을 다루는 요소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11). 미성년 피의자 재범상황별 통계결과.
- 김숙희 (2011). 비행청소년의 분노와 충동성 조절을 위한 게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 효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란 (2011). 희망증진 집단 프로그램이 아동보호시설 비행청소년의 희망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 유가효 (2002). 아버지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5(10), 33-43.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희화 (2001). 청소년의 초기 비행과 지속적 비행에 대한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8(1), 143-162.
- 김희화, 김경연 (2000). 여자청소년의 비행경험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0(4), 487-510.
- 노성호 (2006). 비행친구와 비행행동의 인과성에 대한 검증. 형사정책연구 17(4), 297-332.
- 민수홍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6) 27-47.
- 박현선, 이상균 (2008). 청소년기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및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7, 399-427.
-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2).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분석. 한국아동학회지, 33(1), 81-92.
- 신혜섭 (2005). 가정폭력 요인과 가족구조 요인이 남녀 학생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7(2), 63-88.
- 심희옥 (1997). 아동 후기 초등학교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 심희옥 (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 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9(2), 39-49.
- 여미정 (2011). 게슈탈트 집단프로그램이 아동보호치료시설 비행청소년의 충동성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 오미경 (1997).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위험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8(1), 109-123.
- 오영경, 이형실 (2010).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2(4), 51-64.
- 유성경 (2002). 청소년 비행관련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의 남녀별 차이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01-217.
- 유혜경 (1987).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상, 이순래, 박철현 (2007).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1, 1-92.
- 이명우 (1997). 부산광역시 중·고교생의 비행실태와 예방교육 분석: 청소년 문제와 교육의 과제. 한국교육사회학회 제 120차 학술세미나, 19-50.
- 이미정 (2006). 청소년의 비행경험 수준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 훈련 효과. 한국심리

-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71-91.
- 이성식 (1999). 비행친구와 비행과의 관계: 통합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7, 193-221.
- 이성식 (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8(2), 159-181.
- 이수진 (2006). 비행에서의 남녀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4, 213-252.
- 이은주 (2000). 청소년비행에 대한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청소년학연구*, 7(1), 149-168.
- 임소영 (2000). 비행청소년을 위한 분노조절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쌍식 (1999). 청소년 중비행 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 (2008). 종단적 자료분석을 통해 본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청소년시설환경*, 6(1), 29-37
- 조아미, 방희정 (2003).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지지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1), 249-275.
- 정익중 (2005).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16(1), 35-76
- 정익중 (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31, 133-159.
- 조주연, 김신영 (2010). 청소년 비행 결정요인 탐색: 자기통제력과 자기친구의 주 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검증. *미래청소년학회지*, 7(1), 151-173
-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최수형 (2007). 비행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반응의 성별 차이.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명수 (2000).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243-264.
- 홍정순 (2010). 자기개념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llen, J. P. & Land, D. (1999).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pp.319-335). New York: Guilford Press.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Bishop, J. A., & Inderbitzen, H. M. (1995).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4), 476-489.
- Byrne, B. M. (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happle, C. L. (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22(1), 89-106.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tanford University Press.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Jang, S., & Thornberry, T. P. (1998). Self-esteem,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cy: A test of the Self Enhancement 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4), 586-598.
- Kaplan, H. B. (1975a). *Self-Attitudes and Deviant Behavior*. Pacific Palisades, CA: Goodyear Publishing Company.
- Kaplan, H. B. (1975b). Sequelae of self-derogation predicting from a general theory of deviant behavior. *Youth & Society*, 7(2), 171-197.
- Kaplan, H. B. (1978). Deviant behavior and self-enhance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3), 253-277.
- Kaplan, H. B.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se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 Loeber, R., & LeBlanc, M. (1990). Toward a developmental criminology. *Crime and Justice*, 12, 375-473.
- Mason, W. A. (2001). Self-esteem and delinquency revisited (again): A test of Kaplan's self-derogation theory of delinquency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1), 83-102.
- Matsueda, R., & Anderson, K. (1998). The dynamics of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t behavior. *Criminology*, 36(2), 269-308.
- Mears, D. P., Ploeger, M., & Warr, M. (1998). Explaining the gender gap in delinquency: Peer Influence and Moral Evaluations of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3), 251-266.
- O'Malley, P. M., & Bachman, J. G. (1983). Self-esteem: Change and stability between ages 13 and 23. *Developmental Psychology*, 19(2), 257-268.
- Paternoster, R., & Brame, R. (1997). Multiple routes to delinquency? A test of developmental and general theories of crime. *Criminology*, 35(1), 49-84.
- Pratt, T. C., & Cullen, F. T.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3), 931-964.
-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 (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6), 1004-1018
- Sampson, R. J., & Laub, J. H.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unk, D. H., & Lilly, M. W. (1984). Sex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nd attributions: Influence of performance feedback.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3), 203-213.
- Simons, R. L., Johnson, C., Conger, R. D., & Elder, C. (1998). A test of latent trait versus life-course perspectives on the ability of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Criminology*, 36(2), 217-243.

1 차원고접수 : 2012. 6. 30.
수정원고접수 : 2012. 8. 23.
최종게재결정 : 2012. 11. 26.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of Self-efficacy, Peer Attachment, and Juvenile Delinquency of Adolescents: Utilizing Self-Enhancement Model

Sungbum Woo

Sung-Yeon Kim

Seung-U Lim,

In-Kyu Baek

Duk-Hyun Nam

Eunjoon Yang

Korea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utilized latent growth model to examine how self-efficacy, peer attachment, and juvenile delinquency changed over time, and how these changes were related across time. While the previous studies on the self-enhancement theory of juvenile delinquency mainl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juvenile delinquency, the current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their relationship, and examined the change on each variables across time. The data was gathered from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and 5-year data of 3449 adolescents from the 2nd year in middle school to the 3rd year in high school was examined. The results confirmed the translinear model of self-efficacy and peer attachment, while the same model for juvenile delinquency was not supported. Multi-group analysis of the linear model in self-efficacy and peer attachment showed gender differences in initial value of self efficacy and peer attachment, as well as the rate of change for peer attachment. The test of the self-enhancement model supported the hypothesis that self-efficacy was enhanced by juvenile delinquency and peer attachment. Finally, multi group analysis of the self-enhancement model showed differences in path coefficients in the model betwee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Key words : Self-Enhancement Theory, Latent Growth Model, Juvenile Delinquency, Self-Efficacy, Peer Attachment